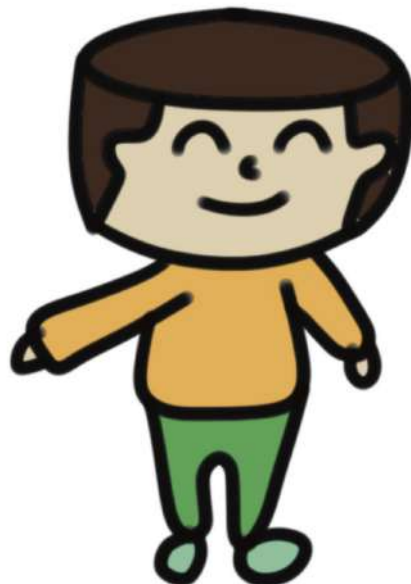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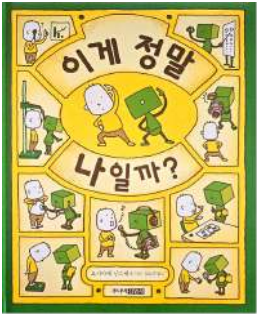
나는

단 한 명밖에 없어.

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,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
생김새가 다른 '나무'같은 거래.

자기 나무의 '종류'는 타고나는 거여서 고를 수 없지만
어떻게 키우고 꾸밀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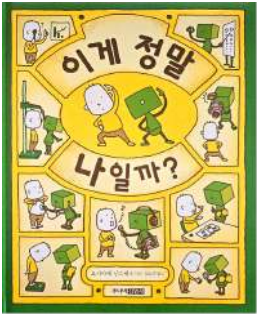
나는

단 한 명밖에 없어.

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,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
생김새가 다른 '나무'같은 거래.

자기 나무의 '종류'는 타고나는 거여서 고를 수 없지만
어떻게 키우고 꾸밀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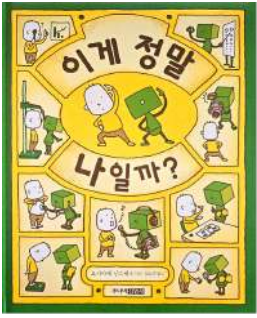
나는

단 한 명밖에 없어.

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,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
생김새가 다른 '나무'같은 거래.

자기 나무의 '종류'는 타고나는 거여서 고를 수 없지만
어떻게 키우고 꾸밀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





나는

단 한 명밖에 없어.

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,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
생김새가 다른 '나무'같은 거래.

자기 나무의 '종류'는 타고나는 거여서 고를 수 없지만
어떻게 키우고 꾸밀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

